

### 건교부, 올해 골재 2.4억m<sup>3</sup> 공급키로 (2005. 1. 3)

건설교통부는 골재채취 허가기관인 시·도와의 조율을 거쳐 지난해 계획량보다 8.4% 감소한 2억 4,615만m<sup>3</sup>의 골재를 전국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내용의 '2005년도 골재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건교부가 확정된 공급계획은 지난해 12월 24일 마련한 계획안 4.7% 감소보다도 더욱 줄어든 것이다. 건교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 레미콘 수요량이 작년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작년보다 공급계획을 낮춰 잡았다"며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골재는 해당 지자체가 조달한다는 원칙 아래 일부 지자체는 직권 조정을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각종 건설공사를 위해 모래 1억 815만m<sup>3</sup>, 자갈 1억 3,800만m<sup>3</sup> 등 모두 2억 4,615만m<sup>3</sup>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모래는 8.3%, 자갈은 8.6%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모래의 경우 웅진·태안군의 공급량 축소로 바다의 공급비중이 23.9%로 감소한 반면 부순모래는 65.7%가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바닷모래는 웅진군에서 지난해보다 56.5% 줄인 1,000만m<sup>3</sup>, 태안군에서 24.4% 감소한 330만m<sup>3</sup>, EEZ에서 300만m<sup>3</sup> 등 총 1,630만m<sup>3</sup>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부순모래를 지난해 보다 147% 늘어난 1,500만m<sup>3</sup>를 수도권에 공급, 충당하기로 했다.

### 시멘트업계 신사업 승부 (2005. 1. 6)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시멘트업계가 신사업 발굴 및 해외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출하량 감소와 중국 시멘트 수입증가로 '이중고'에 빠지면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현재 동남아 레미탈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아울러 친환경적이면서 제조원가도 낮은 고강도 콘크리트 혼화제 시장진출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내 레미콘시장 진출도 타진해왔지만 중국기업과의 협상결렬로 보류됐으며 시멘트와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한 투자대상도 모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일시멘트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레미탈과 성장 가능성 높은 고강도 콘크리트 혼화제 제품에 집중해 중국시장 진출에 나선 것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신양회 역시 2년간의 신규사업 검토끝에 기계와 바이오분야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비상장기업 가운데 잠재성장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번 투자를 계기로 다른 분야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 지난 2년간 리서치를 해왔다"면서 "국내 경기흐름을 봐가면서 신사업진출 여부를 저울질 할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 "건설자재 국내수요 올해도 감소세" (2005. 1. 17)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감소했던 건설자재의 국내 수요가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강재·레미콘·시멘트·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내수가 지난해 5.7~7.5%의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올해도 0.5~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재 중 형강내수 수요는 지난해 6.8%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4.0% 줄면서 373만톤에 그칠 전망이다. 철근 수요의 경우 지난해 7.5% 감소하는 등 지난 200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내수도 지난해에 비해 5.9% 감소한 1,076만 5,00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5.9% 감소한 레미콘 출하량은 올 상반기까지 감소세(-3.1%)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소폭(2.1%) 증가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5% 줄어든 1억 3,840만<sup>3</sup>m<sup>3</sup>가 출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시멘트 수요는 지난해 5.7% 감소한데 이어 올해 3.6% 줄어 5,3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으며 골재내수는 올해 2억 2,839만<sup>3</sup>m<sup>3</sup>로 감소세를 이어가겠지만 그 폭은 -4.1%에서 -1.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합판내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2.9% 감소해 197만 3,000m<sup>3</sup>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 시멘트업계 '종로시대', 동양시멘트 입주 (2005. 1. 21)

시멘트 관련 업계가 '종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서울 여의도에서 종로에 입성하는데 이어 유진도 인근에 그룹본사를 확장 이전한다. 지난 2003년 종로에 들어온 삼표와 기존 성신양회까지 근처에 위치해 시멘트업계에도 '종로파'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멘트업계가 종로에 속속 진입하는 것은 시내중심지 진입이 회사이미지 강화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주변에 여러 관청이 위치해 사업환경도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양그룹은 21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메이저 건설사업본부가 2월 1일 여의도 동양그룹 빌딩에서 종로구 서린동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새로 이전하는 건물은 종로구 서린동 알파타워 건물로 15층을 전부 동양측이 사용할 계획이다. 동양시멘트 이전 배경은 여의도 빌딩 소유주인 론스타와 계약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굳이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가운데 관청의 중심지인 종로쪽으로 이전하는게 경영상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 작용해 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성신양회, 터보기계 인수 (2005. 1. 26)

성신양회가 한국터보기계를 자회사로 편입, 터보기계 부문 신규사업에 진출한다. 성신양회는 26일

한국터보기계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777만주(37.67%)를 인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한국터보기계는 자체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동압 어베어링 기술과 고속모터기술을 토대로 터보블로어를 생산,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자금이 필요한 한국터보기계 입장에선 새로운 제품인 터보컴프레셔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본 유치를 위해 성신양회를 끌어당긴 셈이다. 한국터보기계의 경영권은 이현석 사장이 그대로 맡고 성신양회는 자금 지원과 함께 이사진 참여 등을 통해 회사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성신양회의 신규투자로 인해 한국터보기계가 기존 터보블로워에 이어 올해부터는 터보컴프레셔의 본격 생산을 통해 3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감축 등에 3년간 21조 5,000억원 투입키로 (2005. 2. 3)

정부는 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열어 2007년까지 3년간 21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협약이행 구축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3대 분야 90개 과제가 이번 대책의 투자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에 출범하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연간 배출량이 3만톤 이상인 화학, 시멘트, 제지, 철강, 전력기업 6,000개를 대상으로 하는게 환경부의 안이다. 산자부도 정유, 전력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정부는 양 부처안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각 업종 및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할 방침

이다. 정부는 또 2003년 대비 3%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을 검토중이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전력 의무구입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개도국의 조기 의무 감축 방안이 적극 논의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도출 중에 있다. 또 기후협약에 미가입한 미국이 추진중인 '14개국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십'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주요국들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 II 교토의정서 발효 업종별 희비 뚜렷 (2005. 2. 6)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주요 기업과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기상도'에 따르면 자동차, 건설업은 단기전망(2005~2007년)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중장기 전망(2008년 이후)은 시장확대 등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제지, 발전, 항공업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전자, 기계, 조선, 식품 등은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은 교토의정서 발효로 다른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업종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해 2008년 이후부터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멘트 업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마저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반도체, 자동차 등은 이미 선진국으로부터의 온실가스와 관련한 수출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자발

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II KDI, "경기동향 긍정적인 모습으로 선회" (2005. 2. 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증가율,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지수 등 올 1월의 경기관련 지표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1월 수출증가율이 18.7%로 작년 12월의 19.5%보다 하락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같은 달 서비스업 생산은 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극심한 민간소비 부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기대지수도 지난해 12월보다 소폭 개선돼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도 완화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이와 함께 주가가 견실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4.06%로 전월보다 0.78% 포인트 상승하는 등 장기금리가 급등한 것은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이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KDI는 이어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이 혼조세에 머물러 있지만 건설투자의 경우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12월 38.4% 늘어남에 따라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 II 골재협회, "바닷모래 채취 규제강화 반대" (2005. 2. 14)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려는 해양부의 방침에 대해 골재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골재업계는 또 해역이용환경평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복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골재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같은 도입반대 의견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골재협회는 해역이용협의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객관적 의견 개진 보다는 무조건적 편견 및 반대 입장을 표명할 소지가 높고 소모적 분쟁의 장기화로 골재의 적기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바닷모래 채취 행위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난해 모래과동시 채취지역 주민지원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0% 인상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유사사안에 대한 명백한 중복부과로서 사업자에게 경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바닷모래 채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닷모래 채취에 ‘해역이용환경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해양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면 해역이용협의, 주민동의 등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또다시 해역이용환경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게도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 시멘트업계 “대체 연료 개발 활발”

(2005. 2. 17)

시멘트 업체들이 원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주원료인 유연탄을 대신하는 대체 연료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쌍용양회는 페타이어를 시멘트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 지난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페타이어의 열량 비중을 15%까지 높이면서 19만톤의 유연탄 수입 대체효과를 거뒀다. 쌍용양회는 연료대체 자원의 대상을 페타이어에서 페플라스틱, 폐고무, 폐윤활유, 폐비닐 등 각종 폐자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환경 오염원인 생활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도 시멘트 원료로 재활

용, 연간 70억원 정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부동액을 이용한 광물의 미분쇄방법’이란 특허로 시멘트 생산 원료에 들어가는 첨가제로 폐부동액을 활용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동양시멘트도 산업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부원료 및 연료의 일부를 대체해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동양시멘트는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부산물인 페트로리움 코크와 타이어칩 고무류 등을 연료로 연간 9만 5,000톤 사용, 기존 유연탄 연료의 10%를 대체했다. 이밖에도 정수장 및 화학 전자산업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류를 연간 9만톤 정도 사용,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페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대체연료 비중을 지난 2003년에 약 4%에서 지난해 5% 이상으로 높이면서 약 4만톤 이상의 유연탄 대체효과를 거두고 올해는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대체연료 비율을 10%까지 확대키로 한 상태다.

##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2005. 2. 21)

인천지법 민사합의 4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1일 레미콘 제조회사인 S사가 “레미콘 운송차주는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조모(61)씨 등 운송차주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내용 등이 원고에 의해서 정해지는 등 외관상 고용관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같은 사실만으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송차주들이 운행 경로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레미콘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 등에게 있는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점 등을 따져볼 때 피고들은 종속적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지난 2004년 3월 운송계약을 하고 레미콘 운반업무 등을 해

온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공장 내에서 집회를 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조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동양시멘트 “폐열발전소가 효자”

(2005. 2. 24)

시멘트업계가 폐열회수발전소 설립 등 친환경 경영으로 ‘교토의정서 파고’ 넘기에 나섰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온실가스) 소비를 줄이자는 국제 협약이다. 시멘트산업은 생산원가 중 50% 가량이 에너지 비용으로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소 건립과 고온의 소성로를 이용해 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멘트업계에서 폐열회수발전소(폐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동양시멘트이다. 동양시멘트가 292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삼척공장에 건립한 이 발전소는 석회석을 고온(약 1500℃)으로 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연간 13만kwh(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전력절감 효과만 60억원에 달한다. 폐열회수 발전소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나오는 고온의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해 고온·고압의 증기를 만들어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동양시멘트측은 연간 10억원의 발전소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50억원의 제조원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둬 4년 후에는 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시멘트 소성로는 온도가 1500℃로 고온이어서 이를 이용한 폐열발전이나 산업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재활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폐열회수발전소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뿐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대비한 자원재활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아시멘트는 폐열발전소의 발전 능력을 중전 연간 2.5MW에서 3.2MW로 확대했다. 생산비용 절감도 연간 13억원에서 25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건설이 짓고 있는 충북 제천의 폐열회수 발전소는 올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산업용 전력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하고 열효율을 높여 당초 목표보다 발전량을 더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일시멘트도 폐열발전소 설립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9월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사와 시멘트 제조기술과 폐기물의 자원화기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 영동지역 항만수출 작년동기 2배 증가

(2005. 3. 11)

영동지역 항만을 통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 동해, 묵호, 속초, 옥계항을 통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3,165만 7,000달러를 기록해 지난 1월의 90% 증가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시멘트 3개 업체의 수출이 2,023만 2,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지금까지 수출국이 주로 일본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부터는 미국과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어 앞으로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또 지난 1월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폐로망간도 지난 2월 전년대비 113%가 증가하는 등 2개월째 연속 폭증했고 생산라인 증설로 주춤했던 소주도 10%가 증가하는 등 동해안 주요 수출품목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중 수입액도 유연탄과 아연, 망간 등 원자재 수입증가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4,595만달러를 기록했다.